

#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 Relations among Toddler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박보경(Bo-Kyung Par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toddler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and toddler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ne hundred and two mothers of two-year-old children (49 boys and 53 girls)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Q-sort.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First, toddlers' pleasure was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withdrawal, while social fearfuln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withdrawal. Also, toddlers' activity level and anger proneness were positively related to aggression. Second, the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in maternal parenting was negatively linked to toddlers' social withdrawal, and maternal rejection was positively linked to toddlers' aggression. Third, toddlers' pleasure and interest/persistenc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and toddlers' activity level and anger pronen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rejection. Finally, mothers'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acted as a mediator between toddlers' pleasure and social withdrawal. Also, toddlers' activity level and anger proneness influenced aggression through maternal reje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oddler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play crucial roles in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aladaptive behaviors such a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

▲주제어(Key Words) : 걸음마기 아동(toddler), 기질(temperament), 양육행동(parenting),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공격성(aggression)

### I. 서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 보다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생후 초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부적응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위축,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공격성, 반항, 과잉활동, 주의산만, 충동, 나쁜 습관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e.g., X. Chen, L. Wang, H. Chen, & M. Liu, 2002; C. H. Hart, D. A. Nelson, C. C. Robinson, S. F. Olsen, & M. K. McNeilly-Choque, 1998; M. H. Kim, K. H. Ok, & H. Y. Chun, 2003; K. H. Rubin, C. S. Cheah, & N. Fox, 2001; H.-K.

---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Bo-Kyung Par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10-4706-1531, E-mail: pbk0917@ewha.ac.kr

Ruy & S. Lee, 2007; S. J. Seo & J. Y. Ha, 2008). 이 중 사회적 상호작용에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적 위축과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고 반항을 보이는 공격성은 특징적인 대표적 부적응 행동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훗날 또래거부나 보다 심각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전조가 될 수 있다(K. Keenan, D. Shaw, E. Delliquadri, J. Giovannelli, & B. Walsh, 1998; L. J. Nelson, K. H. Rubin, & N. A. Fox, 2005; K. H. Rubin, X. Chen, P. McDougall, A. Bowker, & J. McKinnon, 1995). 또한, 이러한 부적응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중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를 치료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전에는 주로 학령기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e.g., K. Y. Kim & K. Y. Kim, 2005; M. J. Kim & H. S. Doh, 2001; M.-J. Park & B.-G. Choi, 2004) 초기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유아기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옮겨지는 경향이 있다(e.g., J.-Y. Kim, H.-S. Doh, & M.-J. Kim, 2008; S. A. Kim & S. Y. Park, 2009; C. S. Lee & E. J. Hyun, 2008; S. Lee & S. M. Kim, 2009). 하지만, 유아기보다 더욱 어린 아동에게서도 사회적 위축이나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되므로(D. F. Hay, J. Castle, & L. Davies, 2000; R. E. Tremblay, 2000; S. A. Um & S. Y. Park, 2006; J. H. Youn & J. H. Lee, 1999), 이전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내적 요인에는 아동의 기질(A. Caspi, B. Henry, R. O. McGee, T. E. Moffitt, & P. A. Silva, 1995; N. Eisenberg et al., 2001), 정서조절 능력(J.-Y. Kim et al., 2008; S. A. Kim & S. Y. Park, 2009), 사회정보처리과정(N. R. Crick & K. A. Dodge, 1996; J. Kim & K. J. Park, 2006), 사회적 유능감(C. S. Lee & E. J. Hyun, 2008) 등이, 개인 외적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행동(X. Chen et al., 2002; C. H. Hart et al., 1998; S.-Y. Park & E.-J. Ko, 2004), 양육스트레스(S. Lee & S. M. Kim, 2009), 부부관계(C. H. Hart et al., 1998; J.-Y. Kim et al., 2008)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특히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과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C. S. Lee & E. J. Hyun, 2008; K. H. Rubin et al., 2001; H.-K. Ruy & S. Lee, 2007; S. A. Um & S. Y. Park, 2006).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아동의 기질의 역할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타고난 기질적 성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가운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 적응해나가는 정도를 뜻하는 적응성이 낮을수록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더 많이 보였으며(C. S. Lee & E. J. Hyun, 2008; H.-K. Ruy & S. Lee, 2007), 새로운 자극과 반응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approach/withdrawal)이 높은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보다 많이 나타내었다(C. S. Lee & E. J. Hyun, 2008). 반면에, 유쾌하고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지니거나 식사, 배설, 수면 등의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덜 나타내었다(C. S. Lee & E. J. Hyun, 2008). 이러한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9개월 때 두려움을 보이거나 울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반응성(negative reactivity), 14개월 때 행동억제, 14개월과 24개월 때 사회적 두려움(social fearfulness), 4세 때 수줍음(shyness) 등이 4세 아동의 놀이하는 동안 방관적이고 불안해하며 망설이고 경계하는 행동(social reticence/wariness)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 A. Henderson, N. A. Fox, & K. H. Rubin, 2001; H. A. Henderson, P. J. Marshall, N. A. Fox, & K. H. Rubin, 2004).

아동의 기질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뜻하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기 아동은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으며(J. Y. Choi & M. A. Kim, 2010; J.-Y. Kim et al., 2008; C. S. Lee & E. J. Hyun, 2008; S. Lee & S. M. Kim, 2009; H.-K. Ruy & S. Lee, 2007; J.-J. Youn, S.-Y. Kang, & B.-J. Lee, 2005), 보다 어린 19-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활동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다(S. A. Um & S. Y. Park, 2006). 공격성을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아기 아동의 활동성은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A. Russell, C. H. Hart, C. C. Robinson, & S. F. Olsen, 2003). 또한, 짜증스럽고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유아기 아동은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으며(J. Y. Choi & M. A. Kim, 2010; C. S. Lee & E. J. Hyun, 2008; Y.-M. Won, H.-W. Park, & K.-O. Lee, 2004; J.-J. Youn et al., 2005), 이와 유사하게 역기능적으로 정서를 조절(emotion dysregulation)하는 24개월 걸음마기 아동에게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공격성이 관찰되었다(K. H. Rubin, P. Hastings, X. Chen, S. Stewart, & K. McNichol, 1998). 이 외에도, 수줍음이 높은 유아기 아동이 공격성을 덜

보인다거나(J.-Y. Kim et al., 2008; A. Russell et al., 2003) 기분상태가 긍정적인 유아기 아동이 공격성을 적게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C. S. Lee & E. J. Hyun, 2008). 종단적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2세 때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는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2세 때 화나고통을 표현하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는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L. Wang, X. Chen, H. Chen, L. Cui, & M. Li, 2006).

이와 같이 학령 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이처럼, 기질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수줍어하고 회피하는 기질적 성향이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높은 활동 수준 및 화나 짜증을 내는 부정적 정서가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화를 위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은 더욱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외향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덜 나타내는 반면(M. H. Kim et al., 2003; C. S. Lee & E. J. Hyun, 2008), 거부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S. Lee & S. M. Kim, 2009).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성을 조장하지 않으며 과보호적일수록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 S. Lee & E. J. Hyun, 2008; H.-K. Ruy & S. Lee, 2007). 관찰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유놀이 동안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자주 보이면서 자녀 가까이에서 통제를 많이 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sollicitousness)은 4세 유아기 아동의 망설이는 행동(social reticence)과 관련있었다(K. H. Rubin et al., 2001).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갈등적 수줍음(conflicted shyness)과 사회적 무관심(social disinterest)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3-5세 유아기 아동의 갈등적 수줍음과 관련되었다(R. J. Coplan, K. Prakash, K. O'Neil & M. Armer,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독립성을 조장하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기 아동의 공격성은 낮았으며(M. H. Kim et al., 2003; C. S. Lee & E. J. Hyun, 2008), 강압적이고 통제적이거나 방임·허용하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기 아동의 공격성은 높았다(C. H. Hart et al., 1998; J.-J. Youn et al., 2005). 보다 어린 19-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어머니가 반응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공격성을 더 적게 보인 반면,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 A. Um & S. Y. Park, 2006). 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연구들에서도 2세 걸음마기 때 어머니의 유도적(inductive) 양육행동은 4세 유아기 아동의 공격성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부적으로, 권력행사적(power assertive) 양육행동은 정적으로 예측하였다(X. Chen et al., 2002; L. Wang et al., 2006).

이처럼, 학령 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특히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지 않고 지나친 보호와 간섭을 하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발달과, 거부적이고 처벌적이며 강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주로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발견되었으나, 본 연구는 보다 어린 걸음마기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예측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의 발달적 기원이 되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또한 밝히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뜻하는 활동성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3세 전후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립심을 더 많이 격려하고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더 많이 도왔으며(H. S. Lim & S. Y. Park, 1994), 최근 연구에서도 18-36개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활동성이 높은 자녀에게 덜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E. J. Kim, S. Y. Park, & H. S. Lim, 2009). 이처럼, 3세 이전 자녀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반면, 좀 더 나이가 많은 만 3-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 S. Kim & G. Y. Jeon, 2003).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것과 같은 정서성이나 부정적 반응성(negative reactivity)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적, 통제적, 비일관적 등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밝혀졌다(J. Braun-

gart-Rieker, M. M. Garwood, & C. A. Stifter, 1997; S. D. Calkins, 2002; E. J. Kim et al., 2009; H. S. Lim & S. Y. Park, 1994; C. L. Porter et al., 2005; Y.-M. Won et al., 2004). 한편, 아동의 반응성이나 사회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있었다. 즉, 만 3-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가 반응성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적게 보였으며(M. S. Kim & G. Y. Jeon, 2003),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회성이 높은 18-36개월 걸음마기 자녀에게 어머니들은 덜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였다(E. J. Kim et al., 2009).

이와 같이 학령 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다소 다루기 힘든 기질적 특성을 자녀가 지닌 경우에 어머니는 보다 부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긍정적인 기질적 특성을 지닌 경우에 긍정적으로 양육함이 밝혀졌다. 한편, 아동의 활동 수준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활동 수준을 포함한 아동의 기질이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리라 가정하게 한다. 실제로, J.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과정 모델(A 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에서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특성 및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 Kim & J.-S. Lee,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적이고 활동적인 남자는 어머니를 지지해 해서 어머니가 공격성에 대해 허용적이 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남아의 공격성을 발달시켰다(D. Olweus, 1980). 이와 달리, 아동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하지 못한 몇몇 연구들도 발견된다(S.-H. Kim & K.-Y. Kim, 1999; B. Weiss, K. A. Dodge, J. E. Bates, & G. S.

Pettit, 1992). 이처럼, 아동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들도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즉,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은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만 2-4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주제로 수행된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 한국 등의 8개국 비교문화연구 자료(e.g., K. H. Rubin et al., 2006) 중 일부를 이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02명의 만 2세 걸음마기 자녀(M = 24.24개월, SD = 1.96)를 둔 어머니들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8.0%(49명), 여아가 52.0%(53명)이었으며, 아동의 68.6%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보육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각각 31.16세(SD = 3.33)와 34.15세(SD = 3.72)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5.1%(4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 졸업이 28.4%(29명)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65.7%(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 졸업과 대학원 졸업이 각각 12.7%(13명)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등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모두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H. H. Goldsmith(1988)의 TBAQ(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TBAQ는 활동 수준(activity level) 20문항, 즐거움(pleasure) 19문항, 사회적 두려움(social fearfulness) 19문항, 화를 잘냄(anger proneness) 28문항, 관심도/지구력(interest/persistence) 22문항 등의 5가지 하위요인(총 10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수준과 관련된 문항에는 '집안에서 놀 때, 아이는 얼마나 자주 온 집안을 뛰어다녔는가?' 등이, 즐거움과 관련된 문항에는 '목욕통 안에 있을 때, 아이는 얼마나 자주 즐겁게 재잘거리거나 얘기했는가?' 등이, 사회적 두려움과 관련된 문항에는 '쇼핑하거나 밖에서 걷고 있을 때 낯선 어른이 다가오면, 아이는 얼마나 자주 긴장하거나 울었는가?' 등이, 화를 잘냄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것(예를 들면, 옷입기나 카시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아이는 얼마나 자주 어머니를 밀쳐내려 했는가?' 등이, 관심도/지구력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30분 또는 그 이상 혼자 놀았는가?'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이 관찰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지난 한 달 동안 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을 경우 '해당 안됨'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한 달 중 절반 이하(3점)', '한 달 중 약 절반 정도(4점)', '한 달 중 절반 이상(5점)', '거의 항상 그렇다(6점)', '항상 그렇다(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동의 기질 점수는 '해당 안됨'에 표기된 문항들을 제외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질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조사에서 즐거움 요인에 해당되는 2문항이 측정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총 106문항을 사용하였고, 이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2문항을 분석시에 제외하였다. 아동의 기질의 Cronbach's  $\alpha$ 는 활동 수준(16문항)이 .75, 즐거움(17문항)이 .79, 사회적 두려움(11문항)이 .77, 화를 잘냄(28문항)이 .65, 관심도/지구력(12문항)이 .70이었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J. H. Block(1981)의 CRPR(Child-Rearing Practices Report)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는 부

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신념 및 행동에 관한 91장의 Q-sort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91장의 카드를 읽고 자신이 자녀에게 하는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이 카드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1점)', '이 카드들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2점)', '이 카드들은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르다(3점)', '이 카드들은 사실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4점)', '이 카드들은 사실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5점)', '이 카드들은 사실과 상당히 비슷하다(6점)', '이 카드들은 사실과 매우 같다(7점)'까지 7개 수준으로 각각 13장의 카드씩 분류하게 된다(see O. B. Chung, K. Rubin, S. Y. Park, C. H. Yoon, & H. S. Doh, 2002).

CRPR은 처벌 지향(punishment orientation), 독립심 격려(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수용(acceptance), 거부(rejection), 성취 지향(achievement orientation), 과보호(concern and protection)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벌 지향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체벌이 가장 좋은 훈육법이라고 믿는다' 등이, 독립심 격려와 관련된 문항에는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대부분의 경우 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등이, 수용과 관련된 문항에는 '내 아이와 나는 함께 다정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다' 등이, 거부와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내 아이에게 자주 화가 난다' 등이, 성취 지향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나 일을 더 잘하도록 아이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과보호와 관련된 문항에는 '나는 내 아이가 다치기 쉬운 곳에서는 거친 놀이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등이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의 특성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처벌 지향, 수용, 성취 지향 및 과보호는 .50 이하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독립심 격려: 1문항, 거부: 4문항)을 제외한 후 독립심 격려(5문항)는 .64이었고 거부(3문항)는 .66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6가지 하위요인 중 처벌 지향, 수용, 성취 지향 및 과보호를 제외하고 독립심 격려와 거부만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은 T. M. Achenbach and C. S. Edelbrock(1981)의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for Toddlers)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우울(depressed), 수면 문제(sleep problems), 신체 문제(somatic problems), 공격성(aggresive), 파괴적 행동(destructive), 기타 문제(other problems) 등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에게 가장 흔히 나타

나는 문제행동인 사회적 위축(14문항)과 공격성(32문항)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원 조사에서 사회적 위축 요인에 해당하는 언어 문제(speech problem)와 관련된 한 문항이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경우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문항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기 피한다' 등이,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에는 '자기 가족 또는 다른 아이들 소유의 물건을 부순다', '다른 사람들을 때린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지난 6개월 이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다소/때때로 그렇다(1점)', '매우/자주 그렇다(2점)'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사회적 위축의 경우 .76이었고, 공격성의 경우 .88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자료는 단기종단적으로 수행된 8개국 비교문화연구(e.g., K. H. Rubin et al., 2006) 중 아동이 만 2세 때 한국에서 수집된 것이다. 연구절차상 만 2세 때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가 실험실을 방문하여 아동-어머니 상호작용 실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험 절차상 아동이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때, 미완성된 질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질문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실 절차를 마무리한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Q-sort 카드를 분류하는 방법이 어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추후에 완성된 질문지와 함께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만 2세 때 수집

된 113명의 자료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된 1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예비 분석에서는 각 연구변인들이 걸음마기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후,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4-1.11과 .90-.96 수준으로 10 이하와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 III. 연구결과

### 1. 예비 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걸음마기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1> 참조). 그 결과, 어머니의 독립심

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Toddler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and Toddler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N = 102)

	Boys (n = 49)		Girls (n = 53)		t
	M	SD	M	SD	
Toddlers' temperament					
Activity level	4.48	.72	4.36	.68	.85
Pleasure	5.16	.70	4.97	.70	1.33
Social fearfulness	3.79	.87	3.81	1.09	-.11
Anger proneness	3.78	.52	3.71	.59	.62
Interest/persistence	4.41	.87	4.41	.82	.04
Maternal parenting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5.32	.97	4.93	.68	2.31*
Rejection	2.11	.93	2.42	1.12	-1.50
Toddler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58	.28	.58	.27	.08
Aggression	.71	.26	.66	.25	.98

\* $p < .05$

격려에서만 걸음마기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31, p < .05$ ). 즉,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더 독립심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 연구변인들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먼저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즐거움은 사회적 위축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r = -.23, p < .05$ ), 사회적 두려움은 사회적 위축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 = .25, p < .05$ ). 즉, 즐거움이 많은 걸음마기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덜 위축되는 반면, 사회적 두려움이 많은 걸음마기 아동은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활동 수준( $r = .21, p < .05$ ) 및 화를 잘냄( $r = .23, p < .05$ )은 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활동 수준이 높고 화를 잘 내는 기질 특성을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더 공격적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독립심 격려가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 = -.27, p < .01$ ).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심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사회적으로 덜 위축되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거부가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r = .28, p < .01$ ).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더 공격적이었다.

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먼저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즐거움( $r = .31, p < .01$ ) 및 관심도/지구력( $r = .25, p < .05$ )은 어머니의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oddlers' Temperament and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N = 102)

	Toddlers' social withdrawal	Toddlers' aggression
Toddlers' temperament		
Activity level	-.18	.21*
Pleasure	-.23*	-.05
Social fearfulness	.25*	.12
Anger proneness	.06	.23*
Interest/persistence	-.14	-.17

\* $p < .0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Toddler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N = 102)

	Toddlers' social withdrawal	Toddlers' aggression
Maternal parenting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27**	.02
Rejection	.07	.28**

\*\* $p < .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oddler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N = 102)

	Maternal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Maternal rejection
Toddlers' temperament		
Activity level	.19	.22*
Pleasure	.31**	.08
Social fearfulness	-.05	.07
Anger proneness	.09	.20*
Interest/persistence	.25*	-.02

\* $p < .05$ , \*\* $p < .01$ 

Table 5.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oddlers' Social Withdrawal from Toddlers' Pleasure and Maternal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N = 102)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Toddlers' social withdrawal	Toddlers' social withdrawal
Toddlers' pleasure	.31**	-.23*	-.17
Maternal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22*
R <sup>2</sup>	.10	.05	.10
F(df)	10.60**(1, 100)	5.69*(1, 100)	5.29**(2, 99)

\* $p < .05$ , \*\* $p < .01$ 

독립심 격려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즐거움이 많고 관심도/지구력이 높은 걸음마기 아동에게 어머니는 보다 많이 독립심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였다.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활동 수준( $r = .22, p < .05$ ) 및 화를 잘냄( $r = .20, p < .05$ )은 어머니의 거부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활동 수준이 높고 화를 잘 내는 기질 특성을 보이는 아동에게 어머니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 5.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때, 독립변인이 이전 단계에 비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부분매개) 혹은 사라지고(완전매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이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이에 부합하였다. 즉, 아동의 즐거움,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 및 아동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아동의 활동 수준, 어머니의 거부 및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그리고 아동의 화를 잘냄, 어머니의 거부 및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우선 걸음마기 아동의 즐거움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즐거움은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31, p < .01$ ),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아동의 즐거움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3, p < .05$ ).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만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Table 6.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oddlers' Aggression from Toddlers' Activity Level and Maternal Rejection (N = 102)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rejection	Toddlers' aggression	Toddlers' aggression
Toddlers' activity level	.22*	.21*	.16
Maternal rejection			.25*
R <sup>2</sup>	.05	.04	.10
F(df)	5.12*(1, 100)	4.59*(1, 100)	5.63**(2, 99)

\*p < .05, \*\*p < .01

Table 7.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oddlers' Aggression from Toddlers' Anger Proneness and Maternal Rejection (N = 102)

	Model 1	Model 2	Model 3
	Maternal rejection	Toddlers' aggression	Toddlers' aggression
Toddlers' anger proneness	.20*	.23*	.18
Maternal rejection			.25*
R <sup>2</sup>	.04	.05	.11
F(df)	4.05*(1, 100)	5.72*(1, 100)	6.24**(2, 99)

\*p < .05, \*\*p < .01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2, p < .05$ ), 아동의 즐거움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는 걸음마기 아동의 즐거움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Table 5> 참조).

다음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활동 수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거부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활동 수준은 어머니의 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2, p < .05$ ), 두 번째 단계에서도 아동의 활동 수준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1, p < .05$ ). 세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활동 수준과 어머니의 거부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거부만이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5, p < .05$ ), 아동의 활동 수준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는 걸음마기 아동의 활동 수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Table 6> 참조).

마지막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화를 잘냄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거부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화를 잘냄은 어머니의 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0, p < .05$ ), 두 번째 단계에서도 아동의 화를 잘냄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3, p < .05$ ). 세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화를 잘냄과 어머니의 거부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거부만이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5, p < .05$ ), 아동의 화를 잘냄

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는 걸음마기 아동의 화를 잘냄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Table 7> 참조).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2세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각각의 관계가 어떠한지와 더불어,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즐거움이 낮거나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걸음마기 아동일수록 더 위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걸음마기 아동의 즐거움과 사회적 위축 간의 부적 관련성 및 사회적 두려움과 사회적 위축 간의 정적 관련성은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쾌하고 긍정적인 기분상태를 지닌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덜 나타내었으며, 새로운 자극과 반응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approach/withdrawal)이 높은 유아기 아동은 사회적 위축을 보다 많이 나타내었다(C. S. Lee & E. J. Hyun, 2008). 사회적 두려움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련성은 국외의 종단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유아기 때 방관적이고 불안해하는 망설임 행동(social reticence)을 많이 보였던 아동은 14개월과 24개월 때 사회적 두려움이 높았던 아동이었다(H. A. Henderson et al.,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편안하고 친숙한 상황에서 자주 웃고 즐거움을 많이 표현하는 걸음마기 아동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쉬우리라 사료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낯선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하고 우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기질을 지닌 걸음마기 아동은 성인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등 위축적인 행동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활동 수준이 높거나 화를 잘 내는 걸음마기 아동은 더 공격적이었다. 아동의 활동 수준과 공격성 간의 정적 관련성은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고 활동적인 걸음마기 또는 유아기 아동이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한 국내외 연구결과들(J.-Y. Kim et al., 2008; C. S. Lee & E. J. Hyun, 2008; S. Lee & S. M. Kim, 2009; A. Russell et al., 2003; H.-K. Ruy & S. Lee, 2007; S. A. Um & S. Y. Park, 2006)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어머니들의 지각을 통해 보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인 놀이를 자주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걸음마기 아동을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기 쉽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화를 잘냄과 공격성 간의 정적 관련성 또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에서 일치하게 보고되었는데, 부정적 정서가 높은 유아기 아동은 공격성을 많이 보였으며(Y.-M. Won et al., 2004), 2세 때 소리를 지르거나 징징거리는 것과 같이 화나 고통을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였던 아동은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으며(L. Wang et al., 2006), 화를 많이 내는 55-97개월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보였다(N. Eisenberg et al., 2001). 국내외 연구결과들에서 일치하게 보고된 것처럼, 또래나 양육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울거나 저항하고 화를 내는 걸음마기 아동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쳐내는 것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 쉬우리라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심을 많이 격려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덜 위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유아기 아동은 어머니가 독립성을 조장할수록 사회적 위축을 덜 나타낸 반면(C. S. Lee & E. J. Hyun, 2008), 어머니가 과보호적일수록 사회적 위축이나 망설임 행동(social reticence)을 더 많이 보였다고(K. H. Rubin et al., 2001; H.-K. Ruy & S. Lee, 2007).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위축과 유사한 개념인

행동억제가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명령하고 금지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 때 만 3세 자녀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S.-Y. Park, 1998)와도 유사하다. 즉, 자녀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다루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이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서 성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아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있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인 걸음마기 자녀에 대해 어머니는 지나친 보호와 간섭을 하기보다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독립심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일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더 공격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9-36개월 걸음마기 아동(S. A. Um & S. Y. Park, 2006) 및 영유아기 아동(C. S. Lee & E. J. Hyun, 2008; S.-Y. Park & E.-J. Ko, 2004)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국내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권력행사적(power assertive) 양육행동을 보일 때 유아기 아동은 또래에게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었으며(X. Chen et al., 2002), 거친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C. H. Hart, D. M. DeWolf, P. Wozniak, & D. C. Burts, 1992). 그리고 어머니가 강압적이고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반응성이 부족할수록 유아기 아동은 신체적 또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C. H. Hart et al.,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유아기 아동과 마찬가지로 걸음마기 아동도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거나 적대적인 것과 같이 거부적인 양육을 보일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쉬우며,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이고 파괴적으로 행동하도록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걸음마기 아동은 좌절과 분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즐거움 또는 관심도/지구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걸음마기 자녀에게 독립심을 더 많이 격려하였다. 아동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 간의 정적 관련성은 자극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M. S. Kim & G. Y. Jeon, 2003; S. J. Seo & J. Y. Ha, 2008)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 잘 웃고 즐거워하는 아동과 같이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아동에게 어머니도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을 보이기 쉬우리라 생각된다. 즉, 잘 웃고 즐거워하는 자녀의 긍정적인 기질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관심도/지구력과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 간의 정적 관련성 역시 나타나,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몰입해있는 시간 정도가 길수록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자녀의 독립심을 더 많이 격려하였다. 이는 지속력과 인내력이 높은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국내의 연구결과(S. J. Seo & J. Y. Ha, 2008)를 지지한다. 어머니들은 놀이나 활동에 오랫동안 몰입하는 걸음마기 자녀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녀에게 호기심과 탐색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의 기질 특성 가운데 활동 수준 또는 화를 잘냄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걸음마기 자녀에게 더 거부적이었다. 아동의 활동 수준과 어머니의 거부 간의 정적 관련성은 신체적 활동성이 높은 만 3-6세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국내의 연구결과(M. S. Kim & G. Y. Jeon, 2003)와 유사하다. 이처럼,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만 2세 걸음마기 아동의 높은 활동 수준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18-36개월 걸음마기 아동(E. J. Kim et al., 2009)이나 만 3세 전후 아동(H. S. Lim & S. Y. Park, 1994)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아동의 활동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활동적인 자녀에게 어머니는 독립심을 격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덜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E. J. Kim et al., 2009; H. S. Lim & S. Y. Park, 1994)과 본 연구의 결과에서의 차이는 측정도구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A. H. Buss and R. Plomin(1984)의 EAS 기질 척도에 기초하여 아동의 활동성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아이는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와 같이 아동의 활동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H. H. Goldsmith(1988)의 TBAQ로 아동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아이는 얼마나 자주 발버둥치거나 도망가려 했는가?’, ‘아이가 교회나 대기실, 레스토랑에서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야 할 때, 아이는 얼마나 자주 그 의자에서 벗어나려 했는가?’와 같이 어머니들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리저리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걸음마기 아동은 어머니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것이며, 어머니는 이러한 자녀를 수용하기보다 거부적으로 양육하기 쉬울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아동의 화를 잘냄과 어머니의 거부 간의 관련성은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일치하게 보고되었다. 즉,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는 것과 같이 정서성이 높은 18-36개월 자녀에 대해 어머니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였고(E. J. Kim et al., 2009), 정서성이 높은 만 3세 전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였으며(H. S. Lim & S. Y. Park, 1994), 정서성이 높은 4-6세 유아기 자녀에게는 부모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보였다고(C. L. Porter et al., 2005). 즉, 울거나 저항하고 화를 잘 내는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높은 활동 수준과 울고 소리 지르며 화를 잘 내는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특성을 어머니들이 다루기 힘든 것으로 지각하며, 이로 인해 보다 부정적으로 자녀에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매개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독립심 격려는 걸음마기 아동의 즐거움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거부는 걸음마기 아동의 활동 수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거부는 걸음마기 아동의 화를 잘냄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의 연구결과(M.-A. Kim & J.-S. Lee, 2004)와 일맥상통한다. 만 3-5세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웃고 즐거워하는 아동은 어머니에게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며 주장적이고 자신감있게 행동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다소 다루기 힘든 기질 특성인 신체적 움직임이 많거나 짜증과 화를 잘 내는 아동에게 어머니는 거부적으로 양육하기 쉽고 이는 아동의 공격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보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질 특성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발달과 관련하여 아동의 선천적 특성인 기질보다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아동의 기질 가운데 즐거움 및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독립심 격려가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발달과 관련되었으며, 아동의 기질 가운데 활동 수준 및 화를 잘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거부와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마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 중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발달에 기여하는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완전매개 역할이 발견되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발달에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인 어머니의 역할이 아동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에게 자녀의 특성이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동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 그리고 아동 교육 및 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가 되기 전 미리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그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을 어머니의 지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연구변인들이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 외에 아버지나 교사에 의한 보고 또는 제 3자에 의한 관찰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연구변인들이 동시에 수집되었으므로 연구변인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발달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 내적 또는 외적 선행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Q-sort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하위요인인 독립심 격려와 거부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CRPR에는 독립심 격려와 거부 외에도 과보호나 처벌 지향 등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자녀양육에 관한 91장의 Q-sort 카드를 7개 수준으로 13장씩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쉽지 않은 과업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던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발달적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과 부모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 되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REFERENCE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4 through 1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1, Serial No. 18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lock, J. H. (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of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valu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Braungart-Rieker, J., Garwood, M. M., & Stifter, C. A. (1997).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The roles of maternal control and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411-428.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alkins, S. D. (2002). Does aversive behavior during toddlerhood matter? The effects of difficult temperament on maternal perceptions and behavio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4), 381-402.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1), 55-68.
- Chen, X., Wang, L., Chen, H., & Liu, M. (2002). Non-compliance and child-rearing attitudes as predictors of aggressive behaviour: A longitudinal study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25-233.
- Choi, J. Y., & Kim, M. A. (2010).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attitude on child's aggress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119-137.
- Chung, O. B., Rubin, K., Park, S. Y., Yoon, C. H., & Doh, H. S. (2002). Temperament, parenting, and behavioral inhibition of Korean todd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4), 71-88.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Goldsmith, H. H. (1988).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Oregon Center for the Study of Emotion Technical Report No. 88-04. University of Oregon, Eugene.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4), 879-892.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 Hay, D. F., Castle, J., & Davies, L. (2000). Toddlers' use of force against familiar peers: A precursor of serious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1(2), 457-467.
- Henderson, H. A., Fox, N. A., & Rubin, K. H. (2001).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s of frontal EEG asymmetry and gen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1), 68-74.
- Henderson, H. A., Marshall, P. J., Fox, N. A., & Rubin, K. H. (2004). Psychophysiological and behavioral evidence for varying forms and functions of non-social behavior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75(1), 251-263.
- Keenan, K., Shaw, D., Delliquadri, E., Giovannelli, J., & Walsh, B. (1998). Evidence for the continuity of early problem behaviors: Application of a development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6), 441-452.
- Kim, E. J., Park, S. Y., & Lim, H. S. (2009). The effects of child gender an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ward toddl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9), 71-82.
- Kim, J., & Park, K. J. (2006). Children's aggression: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and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149-168.
- Kim, J.-Y., Doh, H.-S., & Kim, M.-J. (2008). Problem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133-150.
- Kim, K. Y., & Kim, K. Y. (2005).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withdrawal and aggression: Causal effects of rejection, victimization, and negative representation by parents and pe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247-266.
- Kim, M.-A., & Lee, J.-S. (2004).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characteristics,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aladjustment behavi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5), 145-166.
- Kim, M. H., Ok, K. H., & Chun, H. Y. (2003). The effects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the preschoolers' aggressive and social withdrawal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41(4), 85-100.
- Kim, M. J., & Doh, H. S.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Kim, M. S., & Jeon, G. Y. (2003). The effect of antecedents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2), 207-228.
- Kim, S. A., & Park, S. Y. (2009). Relationships between caregivers' attachment,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Institutionalized vs. home-rear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43-57.
- Kim, S.-H., & Kim, K.-Y. (1999). The causal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1), 155-166.
- Lee, C. S., & Hyun, E. J. (2008). The effects of children's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3), 51-70.
- Lee, S., & Kim, S. M. (2009). The effects of personal and parental variables on young children's daily stress levels and maladjustment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 1-12.
- Lim, H. S., & Park, S. Y. (1994). Mo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Variables related to the first-born chil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5(2), 153-168.
- Nelson, L. J., Rubin, K. H., & Fox, N. A. (2005). Social withdrawal, observed peer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ges 4 to 7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2), 185-200.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Park, M.-J., & Choi, B.-G. (2004).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95-104.
- Park, S.-Y. (1998).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4), 19-33.
- Park, S.-Y., & Ko, E.-J. (2004). The effect of day-care, child's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behavior on chil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2), 23-35.
- Porter, C. L., Hart, C. H., Yang, C., Robinson, C. C., Olsen, S. F., Zeng, Q., Olsen, J. A., & Jin, S. (2005). A comparative study of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Beijing, China and the wester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6), 541-551.
- Rubin, K. H., Cheah, C. S., & Fox, N.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97-115.
- Rubin, K. H., Chen, X., McDougall, P., Bowker, A., & McKinnon, J. (1995).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Predict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51-764.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Rubin, K. H., Hemphill, S. A., Chen, X., Hastings, P., Sanson, A., Coco, A. L., Zappulla, C., Chung, O., Park, S., Doh, H., Chen, H., Sun, L., Yoon, C., & Cui, L. (2006). A cross-cultural stud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toddlers: East-west-north-s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3), 219-226.
- Russel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Ruy, H.-K., & Lee, S. (2007). Influences of sex, temperament, and maternal attitud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6), 89-100.
- Seo, S. J., & Ha, J. Y. (2008). The effect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variabl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capaci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1), 73-86.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Um, S. A., & Park, S. Y. (2006). Toddler's aggressive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6), 59-69.
- Wang, L., Chen, X., Chen, H., Cui, L., & Li, M. (2006). Affect and maternal parenting as predictors of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2), 158-166.
- Weiss, B.,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2).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Child aggression and a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Child Development*, 63(6), 1321-1335.
- Won, Y.-M., Park, H.-W., & Lee, K.-O. (2004). Children's temperament and home environment in relation to behavior problem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2), 311-333.
- Youn, J. H., & Lee, J. H. (1999). A study on toddlers' behavior problems and caregivers'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171-186.
- Youn, J.-J., Kang, S.-Y., & Lee, B.-J. (2005). A study for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relationship of relative factors -concentrating o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5), 761-770.

접수일 : 2013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3년 10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1월 20일